

# 창업 80돌 맞은 東明社

## '代물림' 채비에 바쁜 崔漢雄 박사



호로 제3세대로의 교체기를 맞고 있는 東明社의 崔漢雄박사와 子婦 李恩周씨(왼쪽).

문화 여명기에 六堂 崔南善(1890~1957) 해 창립, 올 11월1일로 창업 80주년을 맞 明社가 3대째로 대물림 채비를 서두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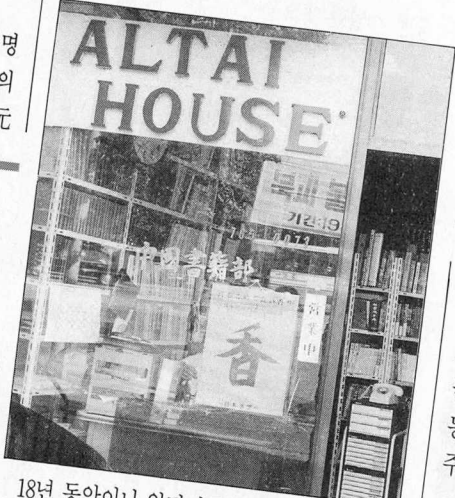
의 전통을 지킨달까, 선대의 遺業을 가 한다는 의무감을 저버릴 수가 없습 행히 아들 내외가 내 뜻을 이어받겠다 餘恨이 없습니다.”

여년간 동명사를 이끌어 오면서 대 출판사업을 양립시켜 온 六堂의 차 박사(71·서울대醫大 명예교수)는 3 라 자자손손이 家業을 이어주기를 다.

설립되기는 1922년. 그러나 동명 당이 1907년에 창립한 新文館의 동명사의 역사는 1907년을 紀元

### 전문 우스

양철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이하우스(Altai House)라는 지 않을 것이다. 비윈 맞은편 에 파묻힌 작은 서점. 「中國 으로 미루어 서점이겠거니 반내도 없다. 을 제외한 아시아 전역에 고 있습니다. 알타이문화 구스, 만주, 한국 등으로 나. 여기 있는 책의 90% 이 중국서적부라고도 부



18년 동안이나 알타이하우스를 지키고 있는 趙寬俊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광의의 알타이문 화관계 서점이라는 얘기다. 그래서 중국은 물론, 인도나 네팔, 몽고 등지의 서적도 있고 동 양학에 관한 일본책과 영문책들도 구비되어 있다.

대여섯평되는 서점의 벽면을 가득 채운 책 들은 약 4~5천권. 사회과학, 문학, 사전, 종 교, 예술·미술, 한의서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으로 삼는다. 육당이 17세 때인 1906년 일본 유학(와세다 대학 高師部 지리역사학과)을 접어치우고, 선 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으로 일본에서 인쇄시 설 일체와 5명의 기술자를 데리고 귀국, 이듬 해 출판사 겸 인쇄소를 차린 것이 곧 우리나라 신문화의 요람이 된 신문관이다. 육당은 그 다음해인 1908년 11월1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적 잡지인 「少年」을 창간한 것을 비롯, 「붉은 저고리」(1912)·「아이들보이」(1913)·「青春」(1914)·「새별」(1915) 등 월간잡지를 잇달아

창간하는 한편, 각종 계몽서적과 우리나라 문 고본의 효시인 '六錢小說'을 간행하는 등 신 문화운동에 크게 공헌했다. 육당이 또 朝鮮光 文會를 설립, 우리 고전 명저들을 출판한 것도 그 무렵의 일이다.

1922년 신문관을 해산하고 새로 창립한 출판 사가 곧 오늘의 동명사. 여기서는 「東明」이라 는 한국 최초의 주간지를 발행했는데, 이듬해 통권 23호를 기록하고 폐간됐다. 동명사는 육 당이 일간지인 時代日報를 창간(1924)했다가 남의 손에 넘기는 등,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하 게 되면서 침체에 빠졌다가 해방 직후인 1945 년 10월 재건되어 그의 차남인 최한웅박사에 게 운영이 맡겨졌다.

동명사는 6·25전까지만 해도 신문관 이래의 전통을 고수해 주로 국사와 국어관계 책들을 출판했는데, 1950년을 고비로 理工계통 전문 출판사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했다. 그 것은 최박사의 전공이 의학이라는 것과 무관 하지 않다.

그동안 동명사가 펴낸 책은 의학·약학·보 건학에서부터 수학·물리·화학·생물·건 축·토목 그리고 기계·금속·선박·항공· 전기·전자 등 자연과학과 기술공학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다.

“연간 30종쯤로 지금까지 출판한 것이 포함 1천여종에 이르는데, 그중 400종 남짓이 현재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학교수인 著者 만도 800여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들을 관리하는 일만도 대학 총장을 하기보다 더 어 려워요.”

동명사는 근래들어 약간의 방향수: 하고 있다. 지난 77년에는 창업 70주: 업으로 한국철학회와 제휴해 「한국철 전3권을 펴낸데 이어 금년 5월에는 「한 사」 전3권을 펴냈고, 최근에는 「가정: 「유아체육」 「부모교육」 「어린이를 위한 민 바이블」 등 비교적 소프트한 책을: 다. “이공계 전문서적 출판에 한계를: 때문”이라는 것이 최박사의 설명이다.

요즘 최박사는 흐뭇한 나날을 보내고: 아들 내외가 동명사의 후계작업에 열성을: 이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의사인 아들 國: (36)가 富川 성가병원 피부과장직을 그만두: 개인의원을 개업하면서 동명사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대견스럽지만, 子婦인: 恩周씨(33)가 매일같이 동명사에 나와: 무과약에 열심인 것이 더욱 대견스러운 것이다: 이은주씨는 재작년부터 ‘기획관리실장’이: 란 공식 직함을 가지고 동명사의 운영에: 原價계산·재고조사·결산서 작성 등 주로: 經營실무를 익히고 있다.

“이제부터는 출판기획·편집 업무를: 생각이에요. 하루 이틀에 될 일은 아니지만,: 장치는 딱딱한 전문서적보다는 독자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교양물 출판으로 방향을: 바꿀: 가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중앙대 대학원에서 출판학을: 공부한다는 이은주씨는 나름대로 포부가: 대단: 하다. 이제 바야흐로 제3세대의 경영인을: 맞: 는 동명사는 또 한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보여줄: 것: 같다.

“가장 많이 찾는 책은 역시 역사관계 서적입: 니다. 특히 우리 서점이 자랑할 만한 것은: 도: 교나 불교관계 원전이나 연구서라면 거의: 빠: 놓지 않고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에는: 동양철학이나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 주 찾아오는 편이지요.”

그러나 고객이 결코 많지는 않다. 주위에서: 알음알음으로 찾아오는 손님이 대부분. 처음: ‘알타이하우스’가 생길 때만 해도 지금의 3배: 규모였다. 그러던 것이 서점 일대가 노른자: 땅: 이 되면서 규모를 줄이게 된 것. 오랜 세월: 꾸: 준하게 갖추어 온 책들이 이제 서점이: 비: 좁아: 창고속에 파묻히는 실정이다.

“「코리아헤럴드」근무 당시 대만출장을: 갔: 었는데, 그때 중국최대의 출판사인 商務: 印: 書: 館: 을 보고 그 역사와 명성에 크게 감동했습: 니: 다.”

그래서 서울에도 중국책 서점을 열어보자: 한: 거: 죠.”

앞으로 미국수입상이 되든 석탄수입상이: 되: 든 ‘알타이하우스’라는 이름만큼은 꼭: 지: 니: 겠: 다는 趙사장의 말에서 이 서점에 대한 애: 착: 이: 었: 보: 인: 다.

“중국에 대한 열풍이요? 그건 학문적인: 의: 미: 개: 서: 가: 아니라 단지 말문을 열기: 위: 한: 노: 력: 일: 뿐: 입: 니: 다.”

요즘 일고 있는 중국이 열풍이 그저 어학: 신: 풍: 으: 로: 만: 그: 치: 는: 데: 대: 한: 아: 쉬: 움: 을: 이: 려: 게: 표: 현: 하: 는: 趙: 사: 장: 은: 단: 한: 분: 이: 라: 도: 찾: 아: 주: 는: 한: 이: 서: 점: 이: 문: 을: 달: 을: 수: 는: 없: 다: 고: 말: 을: 맺: 는: 다. ‘알타이하우스’의 연락처는 765-0073(서울: 시: 종: 로: 구: 와: 룡: 동: 123번: 지: ).

— 박경순 기자